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몸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속량된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기에,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셨다.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은 1964년 11월 21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에게 한 훈화에서 이 칭호를 장엄하게 선언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이 이름으로 이제부터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이 하느님의 어머니께 더 많은 영예를" 드리도록 정하였다.

아래의 본문 외에는, 성모 공통, 1679.

아침 기도

찬미가

하늘의 빛나는 동정녀시며
찬란한 사랑의 별이시로다
죽을몸 우리의 희망이시며
넘치는 생명의 샘이시로다

지극히 높으신 여왕이시여
신뢰로 청하는 우리도우사
당신을 통하여 안전한길로
성자의 앞으로 인도하소서

당신께 청하는 사람에게만
따스한 도움을 주실뿐이랴
못다한 생각이 미치기전에

기꺼이 그소망 들어주시네

당신의 자애는 위대하시고
당신의 관용도 한이없으니
조물이 가질수 있는모든선
온전히 한몸에 지니시었네

교회의 어머니 동정마리아
거룩한 소명을 받으셨으니
성부와 성자께 영광드리세
위로자 성령께 영광드리세.

즈가리야의 노래, 후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네.

마침 기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아드님을 낳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저희에게 어머니로 주셨으니, 사랑이 넘치는 마리아의 협력으로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하느님의 교회가 자녀들의 성덕으로 기뻐하며 모든 백성을 품 안에 모으게 하소서. 성부와.

저녁 기도

찬미가

교회의 어머니 동정마리아
영광을 받으신 영원하신문
성부와 성자께 나아가는날
저희의 피난처 되어주소서

영광이 가득한 천주의성모

성부의 아드님 낳아주셨네
저희가 기리는 모든사람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다의 별이신 찬란한광채
임금님 혈통의 거룩한모친
성부와 성자께 간청하시어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인자한 동정녀 사랑의성모
지극히 복되신 동정마리아
당신께 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쓸개마시며
십자가 못박혀 상처입으신
성자께 기도를 전해주소서

지고한 임금님 자애의모후
천상의 빛이요 문이시오니
눈물로 청하는 간절한기도
가련한 저희를 굽어보소서

교회의 어머니 동정마리아
거룩한 소명을 받으셨으니
성부와 성자께 영광드리세
위로자 성령께 영광드리세.

또는, 바다의 별이여 기뻐하소서

성모의 노래, 후렴 주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마침 기도, 아침 기도를 보라.